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의천의 행보는 宋 지배층에 영향 끼쳐

대각국사 의천 Ⅱ ㊦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결에서 들으니, 혜인법사께서 화엄불사를 하실 때, 고려의 승통께서 바다를 건너 천만 리 먼 길을 얼어붙음도 꺼리지 않고 중원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스승을 찾아 예로써 뵙고 나라와 조정을 감동시켜 모든 어진 스님들을 법답게 청한 뒤, 접대하는 관리와 함께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고을에 다다를 때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고 귀로 듣기 어려웠던 일인데, 이렇게 항주에 이르러 겨우 3개월 사이에 정법을 일으켜 선비나 불자들이 모두 스님을 향해 쏠리게 하였으니 참으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의천 스님의 방문을 계기로 혜인원의 화엄불사가 크게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한 당시 송나라 승려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의천 스님의 혜인원 방문과 정원법사와의 교류를 계기로 한 화엄종의 재흥, 그리고 교장의 제공은 당시의 송 불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천 스님의 행보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송의 지배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어지는 고려의 불전 입수를 위한 노력 역시 송 지배층 일각에 경계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의천 스님을 앉은 채로 맞이한 것 때문에, 송 지배층 일각의 찬사를 받았던 요원 선사의 이례적인 태도 역시 이러한 경계심과 연관되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천 스님이 교학을 토대로 삼아 이론 면에서 송의 화엄종을 부추겼으므로 송의 선종계가 의천 스님 스님의 활동에 대해 불쾌하고 우려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어 있다

고려전기의 왕실과 불교의 관계는 송에 비하면 대단히 평등한 것이었다. 곧 왕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이것은 의천 스님 당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 그렇다. 문종 이후 고려왕실에서는 의천 스님을 필두로 다섯 명의 화엄종 출신 국사를 왕자들로 채우는데, 왕권의 중요한 기반을 교권의 확보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왕권과 교권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송의 경우, 통치자의 지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종파의 흥성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교권이 왕권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의 사신

중국 항주 고려사는 927년에 오월왕 전홍숙이 혜인원이라는 선원으로 세운 사찰이다. 그러다가 항주에 온 의천대각국사와 깊은 인연을 가지면서 고려사란 이름으로 통하고, 2005년 9월에 복원을 시작하다가 2007년 5월 1일에 정식으로 관광불교사찰로 대외에 개방됐다.

의 자격을 가진 왕자 출신의 승통에 있는 승려를 일개 승려가 앉아서 맞이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 이례적인 태도는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적 노선의 차이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의천 스님의 행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도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장소(章疏)의 수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일 것이고, 둘째는 송에서의 교학 특히 화엄사상의 부흥이었을 것이다. 이미 송나라에 가기 전부터 송의 사정에 밝았던 의천 스님이 구법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혜인원을 후원했다는 것은 후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송 지배층 내에 존재하던 갈등을 좀더 확연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의 전성기에 왕자로 태어나 동아시아 불교계의 한 획을 그었던 우세승통 의천, 그에게 있어서 불교는 불교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불교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꿔가는 신념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그 불교의 변화로부터 고려인들의 삶을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다 놓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음을 그는 끝내 잊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불교인으로서 의천이 세상을 향해 걷는 방법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다. 그의 숨결은 교장(敎藏)이라는 형태로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마산·창원 노동현장에서 불교운동 시도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90년대 불교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변화

최연의 구술을 듣고 있노라면, 그의 활동에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불교운동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의 불교운동은 90년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다양하게 펼쳐지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

1987년 군사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다. 그 해 6월 물결치는 민주화운동의 결과였다. 그 원동력에는 민불련(민중불교운동연합)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역시 커다란 역할을 했다. 승속이 한데 어울려 추진한 불교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그 불교운동의 과정에는 최연을 빼 놓을 수 없다. 최연은 1975년 대불련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대불련 기획국장, 대불련 회장, 80년대 대불련의 후원자인 멘토로서 역할, 그리고 종로 묘각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불교야학운동을 펼쳤으며, 1985년 민불련 출범에 공헌했다.

6·29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했지만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야권이 분열됐고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3당 야합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당시 최연은 불교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대불련) 사무총장 끝내고 2년간 1987년에 인제 현장에 갈려고 마산에 인제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하러 갈라고 내려가다가 대구에 잠깐 들렀는데 대구에 들리다가 고마 거기에 2년간 있게 돼 버렸어요. 취업하러 가다가 대구가 대불련이 좀 약했어요. 거기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다 그 권력자들이 나타난 데라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몇몇 후배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주일간 기초교리강좌를 열었어요. 그게 이제 의식화시키는 기초교리강좌예요."

최연은 그간의 불교운동 경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실제 마산 창원 등지에서 불교운동의 노동현장에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마산으로 가지 않고 대구에 머물게 된다. 대구 경북지역은 최연 자신이 고교 시절 활발하게 활동했던 무대였다.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대구에 진보적인 불교운동을 지원하게 된

중앙신도회 건물, 최연은 7년 동안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주도했다. 안국동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것이다. 그는 마산행을 포기하고 대구에서 활동하기로 한다.

"대불련 경북지부 자체를 싹 바꾸고 아이래 댕기며 내가 여기 좀 더 머물자 정착될 때까지 그래서 진보적인 청년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용화청년회라고. 거기에서. 그래 용화청년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기에 있는 그 당시에 어 재야운동을 하는 민주화운동 대구는 아주 열악했어요. 그게 인제 거기에 인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이강철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시민사회수석한, 머리가 하얀 이강철 선배가 거기에 터줏대감이었지요."

사실 최연은 경북의 대불련을 위해 딱 일주일 동안 기초교리강좌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응이 좋았고 최연 또한 후배들을 길러야겠다는 심경의 변화가 일었다. 마산으로 가지 않은 이유이다. 대불련 선배들은 빨갱이 교육 시킨다고 비난했으나 최연은 활발하게 활동했고, 대불련 경북지부의 성격을 바꾸었다. 핵심 멤버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을 진행했고 이를 중심으로 진보청년단체인 용화청년회가 탄생한 것이다. 최연은 대구에서 2년 동안 활동하했다. 그는 그곳에서 진보적인 토양을 만드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이듬해인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였다. 이 때 최연은 서울로 올라왔고 진보적 불교시사 잡지 〈숲과 나무〉를 창간한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불교설화집 〈사석집(沙石集)〉의 편저자 무주 이치엔(無住一圓) ㊦

그는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무주 이치엔은 제1~5권은 불보살의 영험담, 승속의 변론을 둘러싼 이야기, 둔세자 및 학승의 일화, 화카 및 렌가(連歌)의 설화 등을 모았다.

제6~10권은 인과응보담, 여러 종류의 재미있는 이야기, 교훈담, 둔세담 및 왕생담을 실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각종 사찰에서 법화(法話)의 고귀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불교 입문서로도 널리 활용되었다. 무주는 불교 이야기에 관한 서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계몽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세속적인 설화 가운데에서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우화성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불교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천태·율·법상 등 여러 종파의 이야기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통불교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당시 출가승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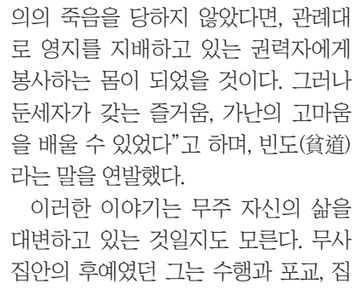
〈사석집〉, 사찰에서 귀한 자료
근세에는 불교 입문서로 활용
종파를 초월한 통불교 지향해

고 고독과 동행한 둔세 이야기는 승려들의 수행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주가 말하는 설화는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친절함에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고하게 거절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고고한 수행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승속의 경계 속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는 이 외에도 〈잡담집〉을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집필하게 되었다. 말년에 붓 가는 대로 화제를 골라 써나갔지만, 그 범위 또한 다양한 종파를 아우르고 있다. 왕성한 호기심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들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잡담집〉에는 유명한 우로술회(愚老述懷)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 노인이 말하기를 "나의 일족은 예전에 모반을 기획하였지만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장자(莊子) 가운데는 대붕(大鵬)이라고 하는 새와 작은 벌레



나고야의 쵸보지 전경

가 나온다. 모기 눈썹에 붙어사는 초명(蟭螟)이 서로 상대를 비웃는다는 이야기처럼 소인은 권력자를 심중에서 웃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자신의 몸조차도 모르는 행위가 아니었던가 라고 세상은 나의 조상을 비웃고 있다. 그러나 막부(幕府)의 최고 권력자인 호죠 토키요리(北条時頼)의 땅은 10만 정보라고 한다. 나의 절은 단지 10정보. 너무나 열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의 쪽이 더 낫다. 어떻게 해도 토키요리는 10만 정보 외에는 자신의 영지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을 것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나는 어떠한 지방에 나가도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 자신의 영지도 자신만이 사용하는 한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출가자의 기쁨은 멋진 일이다. 나도 조상이 불의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관례대로 영지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둔세자가 갖는 즐거움, 가난의 고마움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며, 빈도(貧道)라는 말을 연발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무주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사 집안의 후예였던 그는 수행과 포교, 집필로 삶을 엮어가는 동시에 유전하는 세상을 목격하며, 불법의 가르침은 영욕의 삶을 초월한 호대하고도 무한한 자유의 지평에 있음을 새삼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가 당시 보고 들었던 세상은 오늘날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순간의 명예와 권력을 쥐어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불교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직시하며, 그 한계를 마침내 무위의 열반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매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알라딘·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